

생일

- 12월 25일

특징

호칭할 때는 주로 직급인 병사장을 붙여 리바이 병사장 혹은 리바이 병장이라고 불린다. 계급이 아니라 직책이 병장 혹은 병사장으로, 분대장보다 높고 단장 바로 아래 직급이다. 조사병단 안에서 단장 엘빈 스미스에 이어, 미케와 함께 사실상 2인자의 위치다.

헌병단 단장인 나일 도크에게 반말로 대해서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의 지위를 얼마나 높게 쳐주는지 짐작할 수 있다. 국내 정발판에서는 존댓말로 순화되었지만 리바이는 3개 병단에서 가장 높은 직위를 가진 다리스 작클레 총통에게조차 딱히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 반말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등을 돌린 채 말할 정도. 그러니까 리바이가 존댓말을 하는 대상은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다. 몇 년 뒤인 2부에서는 단장 휘하에서 가장 권한이 높은 지위가 된 듯하다.

엘런 예거가 조사병단에 합류하게 된 이후, 조사병단 특별작전반, 통칭 '리바이 반'을 이끌며, 엘런을 보호함과 동시에 엘런이 폭주했을 때 억제하는 역할을 겸하게 된다.

인류 최강의 병사라는 입지에 걸맞게 늘 자신만 생존하고 자신만큼 강하지 않은 동료들은 계속 전사해서 소중한 사람들을 많이 잃은 인물이기도 하다.

- 흥차를 굉장히 좋아한다.
- 그는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밖에 자지 않는다. 그것도 군복을 벗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서 잔다. 따라서 그는 만성적 수면 부족 상태이다.
- 여자에 대해서 별 관심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입을 옮기면 예전에는 여자가 있었는데 지금 나 같은 성격에 여자가 붙을 성격도 아니라고 한다. 조사병단 내에 친구도 별로 없고 그나마 있는 친구도 한지 조예를 제외하면 모두 사망하였다.

성격

- 리바이 아커만의 가치관은 현실주의와 후회 없는 선택이다.
- 리바이 아커만은 보통의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스타일의 나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남에게 잘 마음을 열지를 않는 성격으로 엘빈 스미스, 한지 조예를 제외하면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말도 거칠다. 그가 말로써 존중하는 대상은 그가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대상 뿐이다.
- 리바이 아커만은 조사병단 내에서 한지 조예 다음으로 실전 경험이 많은 병사인 만큼 정신력이 매우 강인하다. 동료나 친구들도 한지 조예를 제외하고 모두 죽었는데도 그 결과에 대해 딱히 트라우마를 보이지 않는다. 묘사되지는 않지만 꽤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내왔던 미케 자카리아스가 전사했음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은 듯 하다. 구 리바이반 반원들의 사망이나 엘빈 스미스 혹은 사샤 브라우스의 죽음에 대해서는 표정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보인다. 4년 동안 부하로 뒀던 사샤 브라우스가 가비 브라운의 총에 맞아 죽어 한지 조예도 충격을 받았는데 그만이 동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워낙 표정이 없어 묘사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일반인이라면 몇번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걸릴 수 있는 일인데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그가 강인한 정신력을 가졌다는 뜻일 것이다.

대외에 알려진 건 그의 범접할 수 없는 실력뿐이라 완전무결한 영웅처럼 추앙받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신경질적이고 입도 거친 데다, 특히 결벽증이 유별나다. 작가의 말로는 결벽증은 아니라고는 하는데... 청소를 병적으로 강조하고, 거인들의 피가 자신의 몸에 조금이라도 묻으면 반사적으로 표정이 구겨지는 등 작중 모습들을 보면 누가 봐도 심각한 결벽증이다. 구 조사병단 본부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여기저기 더러워져 있는 모습을 보고 거인을 마주쳤을 때와 비슷하게 대단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대청소를 명하며 자기도 앞장서 청소했다. 신 리바이 반의 본부의 청소 상태를 점검할 때는 누구도 신경쓰지 않을 책상 밑 부분의 먼지를 확인하며, 청소에 대한 집착이 보통이 아님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결벽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부하의 피 묻은 손을 망설임 없이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등 겉으로는 잘 표현하지 않지만 부하들에 대한 동료애가 상당하다. 아마 동료를 죽인 거인과 적의 피는 더러울 수 있지만 동료가 흘린 피는 절대 더러울 수 없다고 여기는 듯하다.

협조성이 낮다고 평가되는데, 그렇다고 리바이가 상부의 지시에 안 따르고 독단적으로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에렌도 리바이가 상부 지시에 잘 따라서 이상하게 생각했을 정도. 리바이는 상부의 지시에 잘 따르나 리바이의 전력에 따라 올 동료는 그나마 미케 정도이기 때문에 거인 토벌 때 리바이는 동료들에게 대피나 보좌 정도만 맡기도 혼자서 행동할 수 밖에 없다. 협조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리바이에게 협조할 동료가 거의 없는 셈. 게다가 동료들에게 아무도 죽지 말라고 하는 등 걱정도 한다. 부하들의 목숨을 건 작전에 대해서는 항상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직속 부하들이 몰살되어도 개인적인 감정에 작전의 본분을 잊지 않는다. 하지만 한 직속 부하의 아버지가 딸이 전사한 것을 모르고 리바이에게 말을 걸어 오자 리바이는 아무말도 못 하고 매우 초체한 얼굴을 보이며 걸어갔다.

벽외 조사 이후 엘빈 스미스의 이른 퇴각 명령에 자신의 부하들은 개죽음을 당한 거냐고 따지기도 하며, 자신이 직접 지명한 직속 부하들이 여성형 거인에게 전부 죽음을 당한 것을 보고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착잡한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눈물을 흘린대거나 표정이 심하게 일그러트리진 않는다. 리바이와 함께 생사고락을 나누어왔던 대다수의 친구들과 부하들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것을 과거부터 계속 경험해 왔으니 그만큼 익숙해져서 표정은 굳다 못해 무디어질 만도 하다.

마침내 여성형 거인을 포획했을 때는 "내 부하를 여러 방법으로 죽였지... 그거 즐거웠냐...?" 라고 위협하곤 칼을 뽑아들면서 "나는 지금 즐거워..."라고 말하기도 했다. 의도는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복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인 듯. 여성형 거인 포획 작전에서 사망한 병사 중 한 명인 페트라 라르의 아버지가 다가와 딸의 편지를 들어 보이며 말을 걸 때는 리바이 반 전원이 죽었을 때의 표정보다 더 어두운 표정을 짓기도 한다. 지나친 거인화 훈련으로 지쳐서 코피를 흘리는 엘런 예거에게 손수건을 챙겨주기도 하고 엘런의 몸을 흑사시키지 말 것을 한지 조에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아르민 알레르토가 사람을 죽인 후유증으로 식사를 못 하고 있자 아르민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장 키르슈타인이 사망했을 것이라며 그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등 동료를 아끼는 면모가 자주 부각된다.

또한 신 리바이 반 소속 부하인 히스토리아 레이스를 필두로 한 104기가 몰려와서 자신의 어깨를 때리는 장난을 치자 웃으며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초대형 거인이 시간이나 구에서 거인화했을 때는 늘 '망할 안경'이라 욕하던 한지 조에를 걱정하기도 하였다. 이를 볼 때 리바이가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엄격해도 부하나 동료에 대한 정이 무척이나 많음을 알 수 있다. 리바이는 언제 거인에게 잡아먹힐지 모르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 같은 존재를 갖기를 꺼리며 주변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까봐

두려워한다고 한다는 작가의 언급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하다. 참고로 리바이 특유의 촌데레 같은 면은 외상존을 닮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케니가 겉으로는 리바이와 적대 관계이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조카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고 최후 직전 리바이에게 주사를 건네준 것만 봐도 그렇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변인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성향은 아닌지라, 강압적인 모습을 자주 보인다. 작가 역시 리바이는 굉장히 빼돌어진 성격에 극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연극이었다지만 엘런을 심의소에서 가차없이 두들겨 패고, 자신은 여왕 같은 중대한 일을 맡을 수 없다는 히스토리아 레이스에게 여왕이 될 것을 강요하며 역살을 잡고 들어올리기도 했다. 엘런과 장이 회식 자리에서 싸웠을 때는 주먹질과 발길질 등 필요 이상의 폭력으로 한 방에 제압했다. 엘런과 크리스타의 위치를 추궁하며 헌병단 대원의 입에 발을 처넣거나 팔을 부러트리는 등 가혹행위를 하는데, 넌 정상이 아니라는 말에 그럴지도 모른다고 대답한다. 이런 성격이 된 건 슬럼가에서 살며 스승인 케니에게서 배웠던 시절의 영향으로 추측된다. 사실 케니도 인간적으로 자상한 사람이라 할 수 없기 때문. 리바이가 나고 자란 월 시나 지하도시는 헌병조차도 오기 꺼리는, 즉 정부에서도 이미 포기한 지역인데 그런 곳의 치안이 좋을 리가 없고, 그런 곳에서 매일매일을 목숨 걸고 살아야 하는데 부드럽고 온화한 성격으로 버텨 낼 수가 없다. 그런 성격이었으면 이미 어린 시절에 죽었을지도 모른다. 작가 왈 리바이가 지금 곁에 있는 녀석이...내일도 곁에 있을 거라 생각하나?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거인과의 싸움에 몸을 던져서만이 아닌 어릴 적부터 죽음이 바로 옆에 도사리고 있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 외에도 엘런이나 아르민, 장 등 새로운 자신의 반에게 가혹할 정도로 독설을 퍼부어 현실을 직시하게끔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근데 또 직후에 다정한 말 한마디씩은 붙여준다. 요약하자면 거칠고 냉혹하긴 하지만, 의외로 정 많은 인물이다.

아르민이 사람을 죽였을 때는 이제 아르민은 더 이상 살인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상기시켜 주었다. 하지만 네가 예전의 아르민으로 남았으면 장은 죽었을 거라고, 넌 똑똑하기에 그 상황에서 어설프게 정에 휩쓸렸다면 앞으로 희망은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해주며 아르민더러 네가 손을 더럽혀준 덕분에 우린 살았다며 고맙다고 말한다.

월 마리아 탈환전에서 아르민에게 넌 엘빈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하며, 아르민의 한계를 확인시켜주기도 한다. 하지만 넌 너대로 남들에겐 없는 힘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 아무도 후회하게 만들지 말라는 말을 해준다.

장에게도 사람을 죽인 것을 주저했기 때문에 모두가 위험에 처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그때 상황의 일일 뿐이고, 장의 판단이 정말로 틀렸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한다. 리바이의 이 말을 계기로 장은 다시 한 번 생각했고, 이후 장의 판단으로 쿠데타 중 헌병단 병사 마를로와 히치를 살려 적극적인 도움을 받게 된다.

서열 관계 없이 누구에게도 경어를 사용하지 않고 체제에 순응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다, 의외로 상부의 결정에는 군말 없이 따르는 모습을 보인다. 그 모습 때문에 엘런이 의외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군율 위반으로 엘런과 미카사가 영창에 수감되었을 때에는, 소수만 남은 조직이더라도 형식과 절차를 중시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하는 등, 뻗속까지 군인스러운 면모를 보인다. 또한 지하실에 답이 있다고 확신하는 엘빈에게 꿈을 실현시키고 나면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묻는 등 정곡을 찌르기도 한다. 그 외에 두뇌라면 엘빈에게 뉘치지 않을 한지 조에에게 현실을 인지시키고, 쿠데타를 앞둔 조사병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선택에 관해서는, 리바이가 반복해서 말하는 철학이 있는데, "선택의 결과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 잘 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든, 그 반대든 간에 그것이 결과까지는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최대한 후회가 없을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리바이의 지론이다.

결벽증이 있지만 의외로 비유는 지저분하다. 배설드립을 자주 사용하는데 특히 한지가 늦으면 매번 똥이 나오지 않아서 늦냐고 한다. 3기 9화에서는 로드 레이스 거인에게 포격을 하던중 "매미가 오줌 싸갈기는 것 보단 먹힌다"라고 했고 짐승 거인에게는 섹드립도 친 적 있다. 지하도시 생활이 길어서인지 입에 욕을 달고 살고 시모네타도 막 해댄다. 어린 시절 자신을 키워 준 케니가 입버릇이 나뉘었으니 그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는 듯.

상대의 말을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그대로 돌려주고는 한다. 엘빈이 "팔을 먹힌 채 심신이 지칠대로 지친 내가 불쌍하지도 않나?"라고 한 걸 기억해뒀다가 잠시 후에 신 리바이 반 편성에 대해 말하면서 "팔을 먹힌 채 심신이 지칠대로 지친 네가 불쌍해 내가 이것저것 결정했다."라고 한다든가, 마레의 제1차 조사선단 대장이 "더러운 놈들과 돼지 오줌을 흘짜이는 짓 따위 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을 기억해뒀다가 제2차 조사선단에게 "더러운 악마의 너저분한 섬에 온 걸 환영한다. 대접은 해주지. 돼지 오줌이라도 괜찮다면 말이야."라고 말한다든가.

외모

그의 얼굴은 나이에 맞지 않은 동안이다. 연재 초기에 작가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 향후 전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정확한 나이는 아직 밝히지 않겠지만 30살이 넘었다고. 작은 키와 걸로 보이는 외모와 다르게 나이가 많아 처음 작가가 밝혔을 때 팬들은 다들 놀라워 했다. 그리고 그건 또 다른 모에로 작용했다.

흑발과 날카로운 눈꼬리, 작은 체구 때문에 리바이를 동양인으로 착각하는 독자들도 꽤 있으나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서양인이다. 공식 설정 상 진격의 거인에 등장하는 동양인은 미카사 아커만과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아즈마비토 키요미 뿐이다.

남자치고는 키가 상당히 작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인류 최강이 160cm의 작은 키를 갖고 있다는 것이 갭 모에를 일으켰다. 그러나 작가가 말하길 리바이는 은근히 자기 키가 더 자라길 원한다고 한다. 또한 리바이는 소두이며 모든 부분이 작다고 한다.

몸무게는 65kg으로 왜소한 체구에 비해선 꽤 나가는 편이다. 작가가 말하길 리바이와 미카사 아커만의 체중은 골밀도와 관계가 있다고 한다. 인간은 뇌에 리미터가 달려 있어 근육이 최대로 낼 수 있는 힘의 일정 부분을 세이브하고 있으며, 만약 이 리미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인간은 그 근육의 힘을 버텨내기 위해 정상인보다 튼튼한 뼈를 갖고 있지 않을까, 라는 논리인 듯.

15권에서 유리 조각에 찢긴 팔의 피부를 꿰매기 위해 상의 탈의를 하는데, 슬랜더하지만 탄탄한 복근과 팔 근육이 확인되었다. 마른 근육이라고 할 수 없는,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모습이다.

능력

- 리바이 아커만은 인류 최강의 병사이다. 그의 가치는 일개 여단 혹은 병단 전체와 맞먹는다고 여겨진다.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입체기동장치를 다루는 실력이 능숙하다. 입체기동장치를 손과 발처럼 다루고 다니며 모든 조사병단 병사가 실패한 여성형 거인 무력화에 성공했다. 입체기동이 너무 빨라서 경질화하기도 전에 근육을 모두 베어버려 여성형거인을 거동 불가 수준까지 만들었다.
- 리바이 아커만이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것은 아커만 가문의 특성인 각성 때문이다. 그러나 외전에서 묘사로는 각성 전에도 상당히 강력하였고 입체 기동 능력은 웬만한 조사병단 엘리트들을 능가하는 수준이었다.
- 전술적으로 어떤 쪽이 이익이 되는지 판단하는 힘도 뛰어나다. 여성형 거인을 완전히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파악하고 엘런 예거의 재탈환만을 목적으로 전투에 임했고 그의 부상까지 감수하며 미카사 아커만을 여성형의 공격에서 구해냈다. 그는 전술적 작전을 취할 때 최대한 부하의 목숨을 구하는 쪽으로 작전을 구상한다.